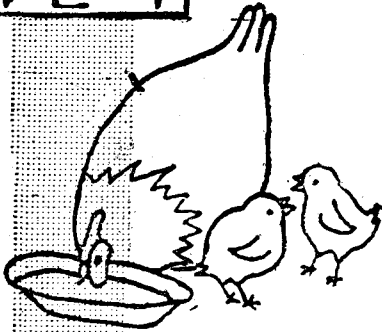


# 이달의



## 사양관리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서는 달이 되고 보니 계사내 외부의 온도상승은 물론 우기로 인한 과습이 더한층 불쾌지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각종 유해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반비례해서 계체는 산란피로와 권태,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유발, 내외 기생충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 부패사로 섭취로 인한 식중독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과거 어느때 보다도 계체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 1. 일반관리

#### 가. 일일관리의 메모

일일관리란 기상에서부터 취침까지 취침에서 기상까지 결국 24시간의 관리가 되겠다. 주간 관리 못지않게 야간의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일관리 중에서 오전의 관리는 일일 총산란율의 60~70%를 산란하는 까닭에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하게 된다. 혹자는 산란율은 발자국 수효에 비례한다고 했지만, 시설상의 결함이 없다면 오히려 오전만큼은 기본관리가 끝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시켜서 부담없이 산란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폐계의 검출시는

새벽 첫환기문<上門, 下門>을 개방한후 잔류해 있는 생계를 수시로 검출한다면 폐계판매시에 평사를 빙빙 돌면서 닭들과 싱개이를 하는 수고도 덜 뿐더러 닭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목적을 달할 수가 있다. 일단 야외사육장으로 닭을 내보낸후 계사바닥쓸기, 급수기 내외의 청결, 파괴된 기물의 수리를 실시하고 채란 이외의 시간에는 계사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간혹 계사내에서 고성방가하거나 닭과의 장난, 담배불을 계사에 집어던지는 종업원이 있는데 이는 필히 시정되어야 한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계사내외부의 밀렸던 작업을 조심스럽게 완료시키며 작업완료와 더불어 마지막 관리를 끝내고 일일 사항을 서류화한다. 동물의 침입이나 도난의 우려가 없는 한 환기문은 개방해두고 야간 경비자를 통해서 새벽 1시경 문을 닫게 하면 더욱 좋다. 각 창문마다의 방충망은 지금부터 시급하다고 본다. 야간에는 각 종 점종과부리자르기등을 실시하며 육용계의 체중도 이때 실시함이 좋다.

#### 나. 온도조절의 중요성

겨울철에는 보온에 치중했지만, 이제부터는 폐온에 치중해야 된다. 닭은 원래 추위에는 강한편이나 더위에는 무척 약하기 때문에 기온의 상승, 과습은 산란율, 증체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온도 변화에 따른 산란계의 여러 조건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6월

정 보 남  
 <한국가금협회 검정소>

	21°C	26.7°C	32.2°C	100°C
사료섭취량	정 상	-7%	-26%	-58%
음 수 량	정 상	+4%	+26%	+35%
산 란 율	정 상	-9%	-22%	-54%
난 중(gr)	59.3	58.9	58.1	49.8
난 각 두께	0.32	0.3	0.28	0.245

이상에서 보듯이 21°C를 정상기준이라고 볼때 온도의 상승결과 산란율, 난중, 사료 섭취량, 난각의두께는 점차 떨어지고 대신 음수량은 증가한다.

#### 다. 환기조절

지난달에도 지적했듯이 창문만 개방했다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다. 방향 위치 여하에 따라 이것은 좌우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지상 5cm에서 7%의 환기가 형성되었다면 25cm에서는 9% 50cm에서는 12% 1m에서는 18% 2m에서는 27%의 환기가 형성된다고 한다.

즉, 지상 5cm에서보다 지상 2m에서는 4배나 환기가 잘되는 셈이다. 결국 계사의 방향이나 지대의 높이 기상조건, 위치 여하에 영향이 미칩은 계사건축시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 2. 연란대책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는 과란이나 연란의 비중이 큰 것 같아 이에 대해 몇가지를 생각하기로 한다. 월인을 보면 유전적 또는 선천적인 요인, 질병감염시<수란관염, 간염, 장염, 기생충감염, 전염성기관지염, 부막염등> 사료영양성분의 결

핍, 조산시, 다산계의 습관성, 각종 스트레스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누차의 증복을 피하기 위해 사료 영양성분의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보통 난각에는 40%의 Ca이 함유되는데 섭취된 Ca중 50~60%는 배설되고 40~50%만이 생산에 흡수된다 그러므로 사료배합시에는 망강 50g/톤인 0.5% 칼륨 0.4% 염소 0.16%, 나트륨 0.16%를 배합시킬것과 특히 10~15°C이상에서는 Ca를 3.75% 더 첨가시켜야 한다.

## 3. 방역위생관리

방역은 자기자신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본다. 입체화되어가는 생활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할수는 없고보니 전체를위한 공동방역태세가 요구된다. 각종 검역기관에서는 도입품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정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외국의 새로운 질병이 만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외인 출입금지라던지, 방충망의 시설, 오물처리장의신설, 환경정화작업, 정기접종과 정기구충, 관리자 위생관리, 영양관리 격리사육, 병계 또는 폐계의 판매행위등 무수한 방역문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 4. 질병관리

각종 병원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허약한 계체에 침입이 용이한 때이고 보면 질병만연이 우려되게 된다. 특히 이달에는 류코싸이토준병, 계두, 전염성하리, 마력병, 식체, 식중독, 곰팡이성폐염, 각종 기생충의 오염 등이 다발할 가능성이 많아 양계가에게 경종을 울리는 때이다.

### 가. 마력병

마력병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연구 도상에 있고 예방법만이 일부 소개되어 있는 형편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제약회사에서 예방백신을 시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생추 구입시에는 반드시 예방백신이 접종된 것을 구입토록 해야한다. 이외에 예방법으로는 우선 마력 질환에 면역과 저항력이 강한 품종을 사육할 것과 사소한 스트레스라도 부여하지 말것. 그리고 공기, 접촉, 기계적인 전염 방법의 차단등으로 다소의 효과를 볼 수있다.

### 나. 기생충성질환

회충, 조충, 맹장충등의 내부기생충과 진드기 와꾸모, 닭이등의 외부기생충의 감염결과 영양장해, 빈혈, 타장기의 압박, 장관폐쇄등으로 적지않은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계사내 외부의 환경정화와 정기적인 구충계획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